

LG전자, 서초 R&D캠퍼스 준공

LG전자가 첨단제품의 기술연구 및 신 성장동력 발굴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에 <서초 R&D캠퍼스>를 준공했다.



이에 따라 서초 R&D캠퍼스와 우면동 전자기술원, 서울대 연구소, 가산동 MC연구소를 잇는 서울 R&D벨트가 완성됐다.

LG 연구개발의 허브가 될 서초 R&D캠퍼스는 LG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시설로 2006년 3월부터 총 2600억원을 투자해 완공했으며, 지상 25층과 지하5층의 연면적 12만5000㎡(약 3만8000평) 규모로 알려졌다.

3000여명의 연구 인력들이 휴대폰과 디지털TV, 멀티미디어, 광스토리지 등의 핵심기술을 연구하고, 디지털 컨버전스(융합) 관련분야에서 신 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.

LG전자는 역삼동에 있던 디자인센터를 R&D센터로 이전해, R&D와 디자인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9/03/19>